



Music: 마음은 서러워도

[강추] 남자는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으면  
오래 산다

남자는 아내가  
있으면 오래 산다  
통계를 보면  
싱글 男보다 아내와  
사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길게 나온다.

이유가 뭘까?  
아내가  
남편을 잘 보살피기  
때문일까?

부부금슬(琴瑟)이  
수명을 늘리는 것일까?

아내의 음식이  
수명을 늘려 주는  
것일까?

아내가 옷을  
잘 세탁해 주어서일까?

물고기의

예를 들어보자.

회집에서는 물고기가  
수조에서 오래 살기를  
희망한다.



죽으면 값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족관에  
새끼 상어를 넣는다.

물고기들이  
먹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

긴장상태의 물고기는  
오래 살아 있다.  
운동량이 떨어지면  
빨리 죽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있으면  
움직여야 하고  
눈치 보며 긴장한다.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태해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남편들은  
수명이 늘어난다.

혼자 사는 남자들은  
긴장이 없다.  
아무 때나 그저 좋을 때  
움직이면 그만이다.



아내가 있으면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게으름 피우거나,  
한눈팔거나,  
술 많이 먹거나,  
양말 벗어 아무 데나  
던지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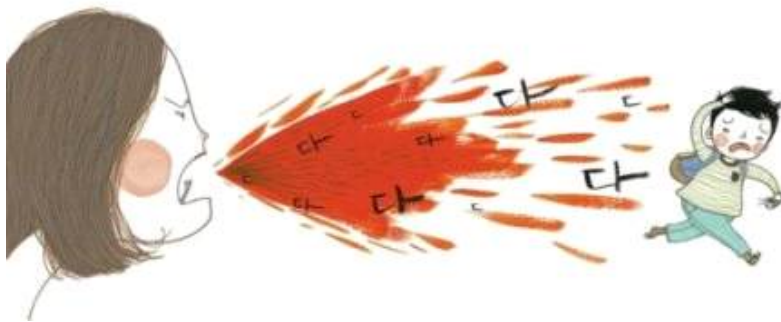
늦잠 자거나  
일거수일투족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내의 잔소리는  
바로 퍼부어진다.

남편은 긴장하고 즉시  
타협해야 한다.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들을 가만 두지 않도록  
수족관 새끼 상어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래서 아내란  
참 고마운 존재이다.  
남자의 수명을  
늘려 주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내의 잔소리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아내 때문에  
수명 연장되는 이유가  
더 있다.

남편은 생활비  
해결하려고 늘 고민한다.  
고민하면 신경 쓰게 되어  
수명이 연장된다.

두뇌 노동자가  
육체 노동자보다  
오래 산다.

아내는 남편이  
두뇌 노동자가  
되도록 돕는다.

아내의 잔소리를  
고마워하자.  
아내의 바가지를  
고마워하라.  
아내에게 감사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100 세까지  
살 것이다.

?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 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